



20
21

Vol. 09

시사·보도 프로그램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시사·보도
프로그램

04

양적 분석

09

내용 분석

16

나가며

17

체크리스트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내용분석보고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사회 현안을 면밀히 다루어 이를 대중에게 전달한다. 이때 어떤 사회 문제를,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시청자가 그 현안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갖는데 영향을 미친다. 시사·보도에서 젠더 묘사가 중요한 이유다. 유네스코 또한 <미디어 젠더 감수성 지표>를 제안해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이 사회 구성원, 인간의 경험과 행위, 시각과 관심을 재현함에 있어 성별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한 바 있다.¹ 서울YWCA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1년 8월 한 달 간 TV에 방영된 16개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성평등 관점에서 모니터링 했다.

유네스코
<미디어 젠더 감수성 지표>(2012)

1. 랜덤으로 선택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콘텐츠에서 재현된 여성과 남성의 비율
2.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정보원의 남성과 여성 비율
3. 전문가, 대변인, 일반인 등으로 등장한 남성과 여성의 비율
4.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5. 사회적 지위와 계층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비율
6.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에 재현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7. 여성과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내용의 비율
8. 여성과 관련된 주제가 주요 시간대 혹은 인쇄매체의 주요 섹션에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비율

<p>모니터링 기간</p>  <p>8월 1일 - 30일² 방영분 중 각 3회분³</p>	<p>대상</p>  <p>TV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16개 프로그램</p>	<p>모니터 인원</p>  <p>5명</p>
---	--	---

표1 _____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no.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1	지상파	KBS1	생방송 심야토론	토/22:30
2			시사 직격	금/22:00
3			질문하는 기자들 Q	일/22:35
4			한밤의 시사토크 더라이브	월-목/22:50
5	지상파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일/20:20
6			PD 수첩	화/22:30
7			100분 토론	화/23:30
8	지상파	SBS	그것이 알고싶다	토/23:10
9			SBS 뉴스스토리	토/08:00
10	종합 편성 채널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월-금/08:50
11			토요 랭킹쇼	토/12:10
12		JTBC	사건반장	월-금/15:00
13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월-금/13:00
14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월-금/17:30
15			신통방통	월/09:00, 화-금/09:05
16	탐사보도 세븐		목/20:00	

1. _____ 이동후(2018), "방송프로그램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예능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 _____ 모니터링 기간 내 결방 및 프로그램 개편을 한 경우에는 이전 방영 회차를 모니터링에 포함하였다.
 3. _____ 주 1회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3주간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지만, 월-금까지 주 5일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모니터 요원이 임의로 모니터링 기간 내 3회분을 선정했다.
 4. _____ KBS1, MBC, SBS, , 채널A, JTBC, TV조선

[양적 분석]

1 출연자 성비

시사·보도 프로그램 출연자 성비는 여성 76명(25.0%), 남성 234명(75.0%)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많이 등장했다. 서울 YWCA가 2019년과 2020년에 진행한 시사·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출연자 성비는 2019년에 여성 76명(24.0%), 남성 240명(76.0%)이었고, 2020년에는 여성 71명(21.3%), 남성 262명(78.7%)이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배 많이 등장하는 경향성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표2 _____ 전체 등장인물 성비 (단위:명)

연번	프로그램명	여성	남성
1	생방송 심야토론	2	13
2	시사 직격	21	30
3	질문하는 기자들 Q	6	15
4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	9
5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5	22
6	PD수첩	1	15
7	100분 토론	2	8
8	그것이 알고싶다	7	29
9	SBS 뉴스스토리	6	3
10	김진의 돌직구쇼	2	9
11	토요랭킹쇼	3	5
12	사건반장	2	6
13	보도본부 핫라인	6	8
14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5	11
15	신통방통	3	11
16	탐사보도 세븐	3	40
합계		76(24.5%)	234(75.5%)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전체 출연자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많았다. 여성과 남성은 30-40대에서는 약 2배 정도 남성이 더 많이 등장하다가 50대 이상에서 급격한 성비 차이를 보였다. 특히 50대에서 여성이 11명 등장할 때 남성은 95명 등장해 약 9배 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50대 남성이 전체 출연진 중의 약 30%를 차지해 과대 대표되는 것은 서울YWCA에서 지난 3년간 꾸준히 지적해왔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다. 시사·보도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형성하는 장이라면, 출연진의 연령대와 성별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3 _____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명)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모름 ⁵	합계
합계	0 (0.0%)	5 (1.6%)	38 (12.3%)	95 (30.6%)	106 (34.2%)	61 (19.7%)	5 (1.6%)	310 (100.0%)
여성	0 (0.0%)	3 (1.0%)	15 (4.8%)	32 (10.3%)	11 (3.5%)	14 (4.5%)	1 (0.3%)	76 (24.5%)
남성	0 (0.0%)	2 (0.6%)	23 (7.4%)	63 (20.3%)	95 (30.6%)	47 (15.2%)	4 (1.3%)	234 (75.5%)

3 출연자 역할별 성비

성별 역할을 진행자(내레이션 포함), 패널, 리포터/기자, 전문가 인터뷰이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진행자의 경우 여성이 5명 (1.6%) 남성이 16명(5.2%)로 약 3배 가량 차이를 보였고 패널의 경우 3.8배, 리포터/기자는 약 4배, 전문가 인터뷰이는 3배 정도 남성이 더 많이 등장했다. 리포터/기자에서 성별 불균형이 가장 심하게 드러났다.

표4 _____ 성평등/성차별적 사례 수 (단위:건)

	진행자 (내레이션 포함)	패널	리포터/기자	전문가 인터뷰이	합계
합계	21(6.8%)	105(33.9%)	21(6.8%)	163(52.6%)	310(100.0%)
여성	5(1.6%)	29(9.4%)	4(1.3%)	38(12.3%)	76(24.5%)
남성	16(5.2%)	76(24.5%)	17(5.5%)	125(40.3%)	234(75.5%)

5 _____ 모자이크되어 외형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전화 연결로 목소리만 나올 경우

4 프로그램별 진행자 성별

각 프로그램 별 진행자 성비를 살펴보면 16개 프로그램 중 무려 10개의 프로그램이 남성 단독(혹은 2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성이 단독 진행자인 경우는 4개의 프로그램이었고, 여성 2인 진행자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찾을 수 없었다.

표5 프로그램별 진행자 성별 (단위:명)

no.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	생방송 심야토론	1	0
2	시사 직격	0	1
3	질문하는 기자들 Q	1	0
4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0	2
5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0	2
6	PD수첩	0	2
7	100분 토론	0	1
8	그것이 알고싶다	0	1
9	SBS 뉴스스토리	1	0
10	김진의 돌직구쇼	0	1
11	토요랭킹쇼	1	1
12	사건반장	1	1
13	보도본부 핫라인	0	1
14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0	1
15	신동방통	0	1
16	탐사보도 세븐	0	1
합계		5	16

<김진의 돌직구쇼> 2021.8.24.



<시사 직격> 2021.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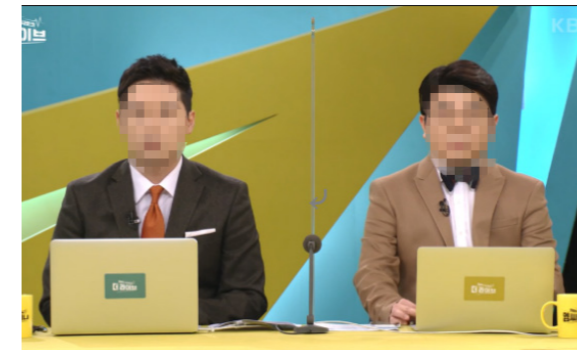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021.8.15.



<탐사보도 세븐> 2021.8.19.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021.8.25.



<100분 토론> 2021.8.10.



<그것이 알고싶다> 2021.8.7.



5 출연자 성별 직업군

출연자의 직업군에서 가장 큰 성비 차이를 보인 부분은 회사원이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 교수, 변호사/검사/판사, 의사에서 2-3배의 성비 차이를 보였다. 서울YWCA가 모니터링 양적 분석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디어 재현에 있어서 실제 여

성/남성의 성비를 맞추려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물론 실제 직업군의 성비를 고려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하듯 비평가/평론가와 경찰/형사의 역할로 남성만 등장할 때 특정 직업군이 남성의 역할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이 시사·보도 프로그램 모니터링이었음을 고려할 때 각 영역에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로 출연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구성원을 대변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특정 의견이 과대 대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출연자 섭외에 있어 다양한 성비, 나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표6 출연자 성별 직업군 (단위: 명)

직업 번호	언론인	평론가	국회의원	교수	법조인	공무원	경찰, 형사	작가	의사	회사원	기타	계
여성	17	0	6	15	8	3	0	3	1	3	19	76
남성	54	6	29	54	24	11	4	2	5	25	17	234
계	71	6	35	69	32	14	4	5	6	28	36	616

[내용 분석]

1 성평등적 내용

젠더이슈와 관련하여 시사·보도의 기본적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한 프로그램 중 성평등적 사례를 발견했다.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젠더 이슈 등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올림픽 중계 방송에서 드러난 성차별 요소를 비판한 프로그램이었다. <질문하는 기자들 Q(KBS1)>는 미디어가 성차별을 조장하며 오히려 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젠더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평등적 보도 및 방송이 필요한 이유를 알리고, 언론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만한 방송분이었다. <시사 직격(KBS1)>과 <사건반장(JTBC)>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전자발찌 등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소재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성평등 사례로 꼽았다. 다만 '위안부'에 관한 논의에서 젠더 관점보다 민족주의적 관점이 더욱 강조되거나, 전자발찌에 관해 단순한 '엄벌주의'로 논의가 흘러간 아쉬움은 있었다. 여성 인권 관련 소재를 다룰 때, 소재를 다루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영일시	분석
KBS1	시사 직격 8/13(85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혐오에 관해 방송했다. '위안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정하고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시위단의 모습을 방영했다. 명백히 피해자와 '위안부'에 관해 증언하는 증인들이 존재하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 여성들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위안부' 강제 동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저지른 심각한 국가적 여성혐오 성범죄다. 심지어 여전히 일본 정부의 진실된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적절한 배상,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해당 방송은 이러한 혐오 행태를 비판하는 동시에故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증언을 되짚으며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가 숨어 있던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로써 '위안부' 최초 증언 및 '위안부' 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6 성평등/성차별적 사례 수

2020년 <시사·보도 프로그램 내용 분석 보고서>의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와 비교했을 때,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9월 1-21일에 방영된 22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였고, 방영기간과 프로그램이 상이하여 절대적인 비교 분석은 어렵다. 그러나 동일한 방송사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했고, 동일한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성평등적 내용은 2020년 2건에서 올해 4건으로, 성차별적 내용은 작년 3건에서 올해 8건으로 모두 증가 양상을 보였다.


표7 성평등/성차별적 사례 수 (단위: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2020년 9월	2021년 8월		2020년 9월	2021년 8월
성평등적 내용	2	4	젠더(성별)고정관념 조장	1	3
			성적괴롭힘·젠더폭력 정당화	1	3
			외모에 대한 평가	1	1
			성적 대상화	0	0
			기타	0	1
합계	2	4	합계	3	8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영일시	분석
KBS1	질문하는 기자들 Q 8/15(16회)	<p>“바뀐 시대상과 높아진 이용자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 경기 중계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들입니다. 남성은 그냥 ‘선수’지만, 여성에게는 여성성을 강조한 수식어를 붙이는 관행이 성차별이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습니다.”</p> <p>2020 도쿄올림픽을 중계·보도한 언론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코너에서는 올림픽 당시 MBC가 개막식의 국가 소개 순서에서 부적절한 설명을 기재한 것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나열했다. 그중 특히 성차별적 문제의 예시로, 남성 선수는 이름만 기재하거나 ‘황제’ ‘검객’ 등으로 소개하는 반면 여성 선수에게는 ‘여제’ ‘미녀 검객’ 등으로 ‘여성’이라는 성별을 부각하는 표현 방식을 들었다. 지금까지 언론사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나아가 전문가 인터뷰로 “(기자들에게) 순발력이 필요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방송에 적합한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기자들에게 인권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발언을 내보냈다. 방송 프로그램의 성차별을 꼬집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p>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영일시	분석
KBS1	질문하는 기자들 Q 8/15(16회)	 
	8/29(18회)	<p>“안산 선수, 올림픽 첫 출전에 3관왕으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느닷없는 온라인 폭력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p> <p>언론이 ‘논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젠더 갈등을 유발하고 부추겨온 관행에 대해 명확하게 비판했다. 일부 극단적이고 과격한 발언만을 부각하여 기사화하는 언론의 행태도 지적했다. 이들은 커뮤니티 내의 비난 글이나 연예인 혹은 정치인 등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기사로 쓸 뿐이었다. 동일 커뮤니티 내에 부적절한 발언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데도, 그러한 의견은 기사화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하는 기자들 Q>는 언론사 수입의 원천이 종이 신문에서 인터넷 온라인 신문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수입에 직결된 기사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하며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해 젠더 이슈 보도에 관해 다층적으로 접근하며 공정성을 확보했다. 한 정치인 인터뷰에서는 언론의 행태가 “폭력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폭력을 합리화하는 문제”로 이어짐을 지적했다. 언론이 ‘젠더 갈등’ 때문에 폭력이 일어난 것’이라고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언론이 젠더와 관련된 온라인 폭력에 ‘논란’이라는 단어를 남용해 온 관행을 벗어나 ‘온라인 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도쿄 올림픽 기간 중 벌어진 여성 선수에 대한 남성들의 행동은 단순한 ‘젠더 갈등’이나 ‘논란’이 아니라 ‘온라인 폭력’ ‘온라인 학대’라는 점을 강조했다.</p>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영일시	분석
KBS1	질문하는 기자들 Q 8/15(16회)	

JTBC	사건반장 8/30 (1711회)	<p>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관리체계에서 이탈하는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 자체에 대한 효용성과 개선 방안, 다른 국가와의 비교 등 여러 측면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분석하여 다루었다. 특히 성범죄자의 인권을 비롯해 기술적인 문제로 전자발찌가 쉽게 잘삭되는 점과 관리 인력 부족을 강조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에 대해 해결책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p> 
------	----------------------	--

2 성차별적 내용

①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앵커 및 패널의 성비 불균형은 본 보고서를 비롯해 다양한 모니터링과 연구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앵커와 패널은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특정 주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 전원 혹은 대부분이 남성들로 구성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남성은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로 등장하는 반면, 여성 패널은 '모성' '여성으로서의 입장' 등에 국한되어 발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영일시	분석
JTBC	사건반장 8/30(1711회)	<p>해당 회차에서 프로그램의 논의를 이끌어가는 앵커와 패널 다섯 명 전원이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나 법률, 범죄 등의 영역에서 의견을 표하는 패널로 대부분 남성이 등장했고, 여성은 모니터링 회차 중 심리, 법률분야에서 단 2명 등장했다. 프로그램의 한 꼭지인 '사건상황실'에서 여성은 뉴스 단신을 전달하는 역할로 등장하고, 단신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하는 역할은 다섯 명의 남성 출연자들이 맡는다.</p> 

② 성적 괴롭힘·젠더 폭력 정당화

성적 괴롭힘·젠더 폭력 정당화는 주로 여성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젠더 폭력 사건을 가해자 입장에서 조명하거나,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몰카'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례였다.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도록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의 원칙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몰카' '나쁜 손' '몸쓸 짓' '성추문' 등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거나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는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⁶ 더불어 삽화를 활용해 가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은 시청자들에게 사건을 일종의 '재밌는 이야기'로, 불법촬영 행위를 '가벼운 일'로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6. 한국기자협회,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영일시	분석
JTBC	사건반장 8/20(1705회)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을 보도, 분석하며 가해자인 남편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별거 중 반찬이 필요해'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외도로 인한 분노' 등에 대한 언급을 통해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 여성 피해자가 경험한 살인 사건을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술함으로써 사건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영일시	분석



③ 외모에 대한 평가

<김진의 돌직구쇼(채널A)>에서는 몇 년 전 대선 당시 외모로 화제가 되었던 한 정치인 가족을 언급한다. '국민 장인'이란 표현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인의 자녀를 연애의 대상으로 간주한 표현이다. 당시 타 후보의 아들도 외모를 이유로 화자되었지만 미디어의 주목 정도가 달랐던 것을 볼 때,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이 일상화 된 우리사회의 관습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영일시	분석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8/20(809회)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크게 후보보다 더 인기 많았잖아요. ○○씨(후보의 자녀) 때문에 ○○○ 후보가 그 당시, '국민 장인이다' 이런 별칭까지 얻었죠.” 한 정치인의 근황을 소개하며, 선거 유세를 돕던 자녀 ○○씨가 외모로 주목받았던 과거를 이미지, 영상 과 함께 소환해 언급했다. 여성의 외모와 인기를 가십거리로 삼았다.

8/5 (1695회)

한 남성이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초등학교를 포함한 1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다. 이 사건을 소개하며 진행자와 패널들이 말하는 내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방송 자막에서 '몰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몰카'라는 표현은 '불법 촬영'이라는 성범죄를 '몰래카메라'라는 장난스러운 말로 표현해 사건의 심각성을 흐린다. 또한 본론에서 나오는 이미지에도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위험한 동호회 오빠'라고 표현해 성폭력을 가버운 것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나가며]

방송 출연자의 성비 불균형은 타 매체에서도 눈에 띄는 양상⁷⁾이지만 유독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남성이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전달자로 여겨지고, 여성은 여성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비전문적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결과다. ‘2021년 상반기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패널 성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시사프로그램 패널로 남성은 4,639명이 여성은 1,331명이 출연했다. 상반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와 종합편성채널 4사(채널A·JTBC·MBN·TV CHOSUN)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남녀 패널 비율이 3.5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는 불균형한 성비는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전달자는 남성이라는 인식을 수용자에게 심어주고, 여성을 평가절하하며 배제⁸⁾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수자나 약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꺾히거나, 젠더적 관점이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특정 성별, 연령대의 의견이 사회의 주된 의견으로 여겨지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안이나 색다른 시각은 공론화되기 어렵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성비 불균형은 방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다.

이러한 성비불균형 발생 원인에는 패널로 등장하는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중 여성이 적어 섭외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의 상당수가 남성이고,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거나 방송에 자주 출연한 전문가들이 검증된 인물로 판단하여 계속 섭외하는 경향이 반복되는 것이 그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각 분야의 여성 전문가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성별, 다양한 직업군의 여성 패널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성비불균형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의 성비 균형을 위해 여성 패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제작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앵커, 패널 간 대화, 자료 화면 등을 사용해 특정한 관점이나 가치관에 기반해 사건을 해석한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상파와 종편 등 노출이 잘 되는 채널을 통해 패널들이 장시간 말하는 포맷이 대부분이므로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현실의 주제가 방송을 통해 다시 재현됨으로써 특정 사회집단을 위한 보도가 객관적인 이야기로 신뢰를 얻고,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수용된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에 있어서 높은 젠더 감수성이 중요한 이유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성별의 패널, 전문가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성 차별적인 사회 현상들을 면밀하게 짚어내는 성평등 사례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성평등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고정관념, 전통적 성 역할을 탈피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본다.

7. 지상파 3사의 2020년 도쿄 올림픽 캐스터 33명 중 여성은 단 2명이었다. 일부 중계에서 여성의 경기력보다 외모, 모성을 강조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중계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세아, “2022 베이징올림픽이 ‘성평등 올림픽’이 되려면”, 『여성신문』, 2021. 11. 23.

8. 나미수, 『미디어와 젠더』,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163쪽.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시사·보도 프로그램

1. 모니터활동가 :

2. 호스팅 채널

① KBS1 ② MBC ③ SBS ④ JTBC ⑤ TV조선 ⑥ 채널A

3. 프로그램 명

4. 방영일시 : 2021년 월 일() : - :

5. 주요 출연자 분석

5-1. 이름	
5-2. 역할	① 진행자(내레이션 포함) ② 패널 ③ 리포터, 기자 ④ 전문가 인터뷰이
5-3.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5-4.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⑦ 알 수 없음
5-5. 직업	① 언론인(기자, PD 등) ② 비평가/평론가 ③ 국회의원 ④ 교수 ⑤ 변호사, 검사, 판사 ⑥ 공무원 ⑦ 경찰, 형사 ⑧ 방송인/전문진행자 ⑨ 개그맨/코미디언 ⑩ 배우 ⑪ 가수 ⑫ 모델 ⑬ 학생 ⑭ 작가 ⑮ 자영업자(사장/대표 포함) ⑯ 일반시청자 ⑰ 요리사/요리연구가 ⑱ 상담사 ⑲ 주부 ⑳ 운동선수 ㉑ 의사 ㉒ 회사원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기타_____

6. 내용분석

1)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2) 성차별적 내용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성적괴롭힘·젠더폭력 정당화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 대상화				
기타				

■ 성평등적 내용

: 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
-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
-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
(남성의 가사 노동은 단순 등장으로 포함시키기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포함시키도록. ex. 남성의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시혜적이라는 식으로 그려질 경우, 단발적이고 이벤트 성의 남성 육아를 보여주는 경우, 같이 가사노동을 하더라도 여성에게 더 큰 역할이 부여되는 경우 등은 다양한 역할로 표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가족형태 다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다양한 가족이 경험하는 차별의 현실을 과장하거나 희화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 성차별적 내용

1.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 여성성/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고정관념을 고착화 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
(ex. 김치녀, 된장녀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 능력 없는 남자를 폄하하는 경우, 여성은 분홍/ 남성은 파랑의 이분법적 색 구도를 보여주는 경우, 남성과 여성의 자리나 위치를 구분하여 다르게 배치하는 경우, 여아에게는 '예쁘다', 남아에게는 '멋지다'고 칭찬하는 경우)
- 특정 역할에서 성비의 수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ex. 집안일을 여성만 하는 경우, 운전하는 모습은 남성만 보여주는 경우, 전문직 종사자로서 남성만 등장하는 경우)
- 남성 중심적 성규범(강간통념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ex. 여성은 순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경우, 남성의 성욕은 자연스럽게 조절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 여성의 옷차림이나 태도가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 남성들끼리 서로의 연애 경험이나 성경험을 공유하거나 옹호하는 경우)
-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ex. 로맨스 상황에서 남성이 위기상황의 여성을 구원해주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경우, 부부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한쪽이 복종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경우, 남성이 여성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강요하는 경우)

2. 성적 괴롭힘·성폭력 정당화

- 방송은 가정폭력, 성적괴롭힘, 젠더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화해 그리고 있는가?
-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와 방청객에 대한 성적괴롭힘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방송은 가정폭력, 성적괴롭힘, 성폭력을 불필요하게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는가?
- 여성에 대한 폭력을 로맨스로 보이게 하는가?
(ex. 손목 낚아채기, 끌고 가기, 벽치기 키스, 싸우다가 키스하기, 거절해도 계속 대쉬하기 등)
- 사건 재연 시 폭력 묘사

3. 외모에 대한 평가

-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가?
(ex.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유머로 혹은 긍정적으로 소비하는가?)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 여성의 외모와 젊음에 가치를 두는가? (ex. 20대 여성을 절대적인 미의 기준으로 제시, 노화를 부정적이고 혐오의 대상으로 표현)
- 여성 건강을 다이어트에 국한하여 다루는가?

4. 성적대상화

- 카메라의 구도나 움직임이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전시하는가?
-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 여성에 대해 침해 가능하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가?

5. 기타

- 방송은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다양한 인간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남성과 여성이 출연하면 무조건 이성애적 로맨스 관계로 규정하는가?
- 방송은 00녀와 같은 거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가족 다양성 지표

- 방송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ex. 4인가족을 정상가족으로 전제, 비하/부정적인 언어사용 : 후레자식, 편모/편부가정, 결손가정 등)
- 다양한 가족을 시청률을 위한 흥미 위주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가?
- 다양한 가족에 관한 정형화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ex.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일탈/방황/부적응자로 묘사, 한부모가정의 양육자를 여성으로 한정, 여성한부모가정이 남성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 정상가족이 된 것을 행복한 결말로 표현, 남성과 여성이 출연하면 무조건 이성애적 로맨스 관계로 규정)
- 다양한 가족에 관한 배제와 낙인을 강화하는가?
- 정형적 가족을 완성으로 묘사하고, 다양한 가족을 열등하거나 불완전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가?
- 연애/결혼/출산을 당연한 생애 과업으로 전제하여 표현하는가?
- 가족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미화하고 있는가?
(ex. 가부장제, 가족구성원의 무조건적 희생, 집단을 구성원보다 중시, 자녀/아내를 소유물로 취급, 이성에 이데올로기)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
최 봄 · 김예리 · 이지은
서울YWCA 여성운동국

감수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발행처
서울YWCA

협력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09)

시사·보도 프로그램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